

언약의 바통 전달자

(창38:1-6)

서론: 여호수아와 그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언약의 바통이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.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긴급뉴스처럼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.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가야하며 감정보다 중요한 것입니다(다윗). 바르게 사는 것, 잘 사는 것,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 붙잡고,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. 다말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

1. 언약의 특징

가. 은혜 언약을 주셨기에 믿게 하옵소서(창3:15).

-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때 기도만 하게 하옵소서(렘33:2).
- 언약을 주시고 말씀 받는 최고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.
- 언약을 깨닫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(고전12:3).

나. 복음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(고후5:17).

- 옛날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며 '다른 나'로서 끝났음을 누리게 하옵소서.
- 베드로처럼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음으로 말씀성취를 확인하게 하옵소서(눅5:1-7).

다. 사탄이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.

- 어떻게든 악한 사탄이 흑암의 역사로 언약을 끊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(엘과 오난, 가인과 아벨,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).

2.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가?

가.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.

- 장자가 아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언약을 이루심을 깨닫게 하옵소서.
- 비윤리적으로 근친상간 한 다말을 통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심을 깨닫게 하옵소서(다말, 라합, 롯, 밋세바).

나. 당황스러운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.

- 홍해, 요단, 여리고가 있었으나 그 어떤 것도 언약은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.
- 세계복음화를 붙잡았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에 언약만 붙잡게 하옵소서.

다. 문제라는 방법으로 사탄도 역사하지만 언약을 이루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.

- 사탄의 역사를 꺾으시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계획과 일을 확인하게 하옵소서.
- 문제에 속지 않으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옵소서(요셉, 다윗).

결론: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. 언약을 담았다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. 가나안 7족속 중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모르고 화친을 맺었으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. 그것 때문에 해와 달이 멈추고 사울이 기브온을 괴롭힐 때 가뭄을 내리셨습니다. 언약 성취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. 다말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. 나를 통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될 것을 안 것입니다. 바르게, 열심히, 많이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. 언약 붙잡고 언약의 바통 전달자로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.